

“대한민국 모든 펫 다 모여라”

임실N펫스타 이벤트 풍성... 4-6일 오수의견공원에서 개최

“대한민국 예쁜이 귀요미 펫들 모두 오수 오수로 모여라~”.

대한민국 펫들을 위한 큰 축제인 '2024 임실N펫스타'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임실군 오수의견공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축제 열기를 북돋아 줄 다양한 홍보이벤트가 전개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은 '제39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2024 임실N펫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 기간 방문객들을 위한 '임실군청SNS' 특별이벤트를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 축제장에서 임실엔TV 구독 이벤트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축제 현장을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홍보, 축제 열기를 뜨겁게 달궂게

정이다.

오프라인 이벤트는 임실엔TV 구독을 인증하면 '스트립 치즈'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 이벤트는 4일부터 6일까지 같은 기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펼쳐지는 가정의 달, 어린이날 맞이 행사장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문화제는 잠든 주인을 재 몸을 바쳐 구한 오수개의 보은정신을 기려 1982년부터 시작한 축제로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부각되고 있는 생명 존중의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전국의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다.

2024 임실N펫스타 주요 프로그램은 영화제를 연상시키며 멋과 개성을 뽐

낼 수 있는 전국 반려동물 패션쇼, 반려동물 토크쇼, 다양한 반려동물용품을 만날 수 있는 반려동물 박람회, 이?미용 체험과 의료센터, 한방센터 등 특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반려동물 패션쇼에는 가수 김미연, 개그맨 이정규가 출연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개성 넘치는 런웨이를 보여주는 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축하공연에는 이찬원, 장민호, 양치원, 오로라, 김의영 등이 출연해 임실N펫스타를 축하해 줄 예정이다.

반려동물 토크쇼에는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 대표와 이용중 교수, 설재현 수의사, 나은식 고양이 수의사를 초청하여 반려동물 가족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는 3일, 오후 1시부터 전국 시니어춘향 선발대회가 개최된다.

남원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 3일 개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서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는 3일, 오후 1시부터 전국 시니어춘향 선발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노년 복지관이 주관하는 선발대회는 올해로 8회째로, 본래 60세이상의 여성들이 참가하였으나 올해는 외국인 및 다문화 여성에게 특전을 부여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서류 심사 기준을 변경하였다.

지난 3월 11일~4월 5일까지 26일간 서류접수가 진행되어 전국 각지의 43명의 신청 중 16명의 본선 진출자가 확정되었으며, 외국인 여성 2명이 포함, 어르신들의 다채로운 삶의 스토리와 그동안 숨겨왔던 끼·재능을 만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250만원), 금상(100만원), 은상(70만원), 동상(50만원), 특별상(50만원) 2명, 우정상과, 참가상으로 10만원이 제공된다.

한편, 사회자는 국악인 박애리가 맡았으며, 식전 공연(12:40)은 ES시니어 모델쇼, 축하공연은 트로트 가수 설운도가 초대되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대회는 각자의 흐름속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을 현시대의 노년들이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는 인생 2막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자리가자 행동으로 행복한 노년이 무엇인지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어른·어린이가 즐기는 '어린이날' 축제 연다

5일 순창발효테마파크서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이 5월 5일 어린이날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기존 어린이날 행사와 달리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의미를 담은 '2024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사생 미술대회가 열리며, 대회 참가는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자신의 도구(물감, 크레파스 등)를 준비해야 하고, 돗자리와 테이블은 재단에서 제공한다. 대회 수상작은 오후에 선정되어 재단 사무실 내

추억의 교실에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발효테마파크 중앙광장에서는 관내 유관기관, 전주대학교 등 업무협약 기관과 연계한 '순창발효왕국에서 술래JOB기'라는 이름으로 진로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이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군으로 구성해 어린이들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에 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초상화 그리기, 캐네이션 브로치 만들기, 발효미생물 키리 파츠 만들기, RC카 체험(미니카 경주) 등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발효테마파크 각 전시관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TV나 영화 캐릭터를 활용한 소품들로 꾸미고 전시판

지원을 또한 캐릭터 의상을 입고 근무하여 방문객들에게 사진촬영 등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특히, 고추장 상설문화마당에서는 'Shall we dance' 퍼레이드, 버블쇼, 마술쇼, 솜사탕쇼 등 어린이 공연과 함께 어른·어린이가 참여하는 골든벨, 동요 디제인, 어린이 EDM 페스티벌 등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선운숙 대표는 "다채로운 공연과 부스 운영을 통해 발효테마파크에서 어린이날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청렴군민감사관'으로 새 출발

강화된 감시 역할로 청렴도 향상

순창군이 지난 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순창군수와 읍면 감사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2분기 순창군 청렴군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기존 명예감사관 명칭을 청렴군민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그 역할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순창군의 청렴도를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한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이날 감사관들은 2023년 청렴도 평가 결과 및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청렴군민감사관들의 활동 실적을 공유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했으며, 2024년 읍면 종합감사 계획과 올해 청렴도 향상 대책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최 군수와 청렴군민감사관은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피켓 행사도 진행하며 청렴 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영일 군수는 "그동안 감사관님들께서 군민 불편사항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제언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 공직자 비위, 부패예방, 청렴도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관님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가족 돌봄 청(소)년 통합지원 추진

남원시가 5월부터 도·월드비전 전북 사업본부와 가족 돌봄 청(소)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이들의 돌봄 부담 완화 및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읍면동이 가족 간병과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34세 미만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를 추천하면 월드비전 전북 사업본부에서 가구당 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일상돌봄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지역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희망 6.17지지원팀 박상희 팀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고 있다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또는 남원시청 희망복지지원팀(063-620-6335)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스마트건강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매우 높아

남원시는 치매환자 24시간 스마트 돌봄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와 보호자 1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실시, 전반적 만족도는 이용자의 평균 5점 만점에 4.38점, 보호자는 4.29점이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4.22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방법은 조사기관인 군산간호대학교에서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표준화된 보고식 질문지를 가지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읽어주면서 1:1 대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스마트 돌봄의 일반적 특성과 서비스 만족도 등이었다.

또한 경기도 치매마을 스마트도시 모델 연구 개발을 위해 경기도연구원 의학박사·보건학 박사 연구원 2명이 지난 4월 22일에 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화된 치매환자 관리사업인 ICT 기기를 활용한 24시간 스마트 돌봄,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남원시 치매안심센터를 다녀갔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취약가구 실내환경 개선 207가구 선정해 사업 추진

남원시가 시범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및 환경부와 함께 환경성질환 우려 취약가구에 대해 신청받은 59가구를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우려 취약가구에 대해 신청받은 59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장애인, 홀로어르신, 결손, 다문화, 청년 가구 등의 환경성질환 우려 취약가구에 대해 신청받은 59가구를 대상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환경유해인자 측정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20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 또는 장판, 페인트, 단열재 교체, 청소 등의 시설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8일까지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7월까지 진단 및 컨설팅을 완료하고 8월 중에 시설을 개선 진행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